



자폐란 무엇인가?

자폐로 알려지기도 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출생 시 또는 출생 직후 시작하여 평생 지속되는 장애이다. 자폐는 개인의 학습 방법과 주변 환경 및 타인과의 상호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 차이.
- 편협된 관심과 반복적 행위.
- 소리 회피나 산만한 움직임 등과 같은 감각 처리 문제.
- 여타 아동과는 다른 학습 및 놀이.

자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들을 보일 수 있으나 모두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당 장애를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지칭한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과, 사회적 이해도, 의사소통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폐는 어떻게 진단하는가?

보통 소아과 전문의나 임상 심리사, 또는 전문가 집단이 아이를 관찰한 후 부모에게 알려주며, 가끔은 교사에게도 이야기한다. 학습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로 하여금 몇몇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도구와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아이가 자폐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자폐는 얼마나 흔한 장애인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명 당 1명 꼴로 자폐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폐로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원인

알려진 원인은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출생 전과 후 모두 포함)이 공히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이 개인별로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자폐의 주요 특성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본인의 요구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으나:

- 타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질문과 코멘트를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한다
- 은유나 다중 의미가 있는 말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 어른처럼 말한다
- 단어나 구절을 계속 반복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들은 당사자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성

사회화란 타인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성 기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며, 게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고, 때로는 무례하게 보이기도 한다.

행동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행동양식을 가지며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행동들은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행동 특성을 보인다:

- 정해져 있는 일상이 필요하다
- 변화를 싫어한다
- 한 가지 주제에 강한 관심을 보인다
- 손을 반복적으로 떠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신체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감각 처리

감각 처리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뇌가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지각 처리의 차이가 아동의 학습 능력과 가정과 학교, 공동체에서의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친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외부 자극에 과대 또는 과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소음
- 접촉
- 시각 정보
- 냄새
- 맛
- 움직임
- 인접한 사람이나 사물.

자폐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능력상의 강점을 가진다:

- 우수한 기억력
- 정해진 일상과 규칙 준수
-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강한 동기와 지식
- 시각적 학습
- 정직함.

자폐가 있는 아동들은 각각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 변화
- 주목과 집중
- 사회적 상호작용
- 감성
- 근육 및 동작 조율
- 시선 고정
- 의미 파악
- 한 곳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곳에 이전 적용
- 감각 처리
- 인과관계 (사건의 순서 이해하기)
- 계획과 구성
- 흥미가 덜한 과제 완료를 위한 동기부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야에 대한 단순한 개선 노력보다는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대한 집중이 좋은 학습 전략이 된다.

참고자료

MacDermott, S., Williams, K., Ridley, G., Glasson, E. & Wray, J. (2007). The prevalence of autism in Australia. Can it be established from existing data? A report for the Australian Advisory Board on Autism Spectrum Disorders. 2008년 1월 23일 검색. 출처: www.autismaus.com.au.